불교명상, 걸으며 함께 체험해요

[현장취재]

한국명상지도자협, 6월 23일 걷기명상대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명상 지도자들을 필두로 2000여 불자들이 한강을 걷고 있다.

최근 불고 있는 명상 열풍에 걷기를 통한 수행의 매력을 더한 색다른 불교계 행사가 열렸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가 6월 23일 한강걷기명상 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사단법인 한국명상지도자협회(협회장 혜거)가 개최한 이날 '명상, 한강을 걷다' 대회에는 2000여 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사전 접수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현장에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차원에서도 첫 연합행사. 협회장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행불선원장 월호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자비선명상원 원장 지운 스님 등 국내 대표 명상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부인 강난희 여사 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참여했다.

이날 혜거 스님은 "걷기는 현대인들이 스스로를 사유하고 관찰해 지혜를 얻는 좋은 방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평양까지 걷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티베트 명상음악가 까락빤빠의 공연 등 사전행사와 함께 자비선명상원 지운 스님의 걷기명상 소개가 진행됐다.

지운 스님은 "그냥 걸으면 안된다. 마음을 내려놓고 한발 한발 디딜때의 느낌에 집중하고 알아차려야 한다"며 "몸이 가벼워짐을 느낌과 함께 마음을 쉬고, 있는 그대로를 느끼자"고 말했다.

강한 햇빛 속에서 참가자들은 월호 스님의 지도 아래 준비 동작을 하고 한강을 옆으로 걷기 명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1걸음당 1원씩 소외계층에 기부를 해 의미를 더했다. 폭염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여의도공원 물빛무대에서 바이크페리 선착장까지 약 3.3km를 묵묵히 걸었다.

행렬 중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하트스마일 명상을 남편과 같이 하고 있다는 정민아 씨는 "개인적으로 걷는 것을 좋아하던 차에 아이들과 함께 참가하면 좋을 것 같았다"며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 비슷한 체험 활동을 하지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봉인사에서 온 신택현 씨는 "명상을 처음 접해보는데 아내의 추천으로 함께 오게 됐다"며 "건강과 함께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는 이날 명상체험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를 마련했다.

이날 체험부스에서 자원봉사를 맡은 전소연 국제포교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명상의 소개기회가 더 많았으면 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여줘 보람차다"고 말했다.

불교환경운동 본격화, 제2 전성기 연다

불교환경연대 4대강 나무심기 · 사찰림연구소 사찰숲전문가 파견


법일 스님(사진 오른쪽)과 청소년들이 함께 버드나무를 심고 있다.

불교계 환경운동이 다시 본격화 된다. 먼저 강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 환경운동이 눈길을 끈다.

불교환경연대와 여주 신륵사, 여주환경운동연합은 6월 23일 신륵사 앞 남한강가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생법회는 4대강 정화를 위한 생명 살림 행사로 자애명상 등도 진행됐다. 행사에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일 스님은 "오늘 심는 나무가 자라서 강의 물을 맑히고 강과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남한강변에 30여 그루의 버드나무 묘목을 강가에 옮겨 심고, 4대강 정화를 기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서울 성일중 1학년 강금림 양과 박소연 양은 "언젠가 TV에서 오염된 4대강 물로 어떤 실험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여기에 오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불교환경연대는 2016년 재출범과 함께 4대강 100일 수행길을 개최하고, 죽어가는 강의 현장을 살폈으며 2017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4대강에 버드나무 방생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6월 23일과 9월 1일 남한강(여주 신륵사)을 시작으로 9월 15일 금강, 9월 29일 영산강, 10월 20일 낙동강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가 열릴 계획이다.

숲을 되살리기 위한 불교계 환경운동도 이어진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6월 22일 숲바라밀본부를 통해 불교계에 숲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밝혔다.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는 한국 사찰림의 체계적인 활용기반을 연구하는 불교계 산림전문연구기관이다.

김미란 사찰림연구소 산림문화교육단장은 "전국 불교계 신행단체나 신도회, 학생회, 어린이회 등이 운영하고 있는 사찰이나 조직의 포교나 신행프로그램 중에 사찰숲 관련 프로그램의 지원을 하는 취지"라며 "당해 사찰이나 신행단체의 개요와 담당자를 선정하여 숲해설사나, 꽃차나 약초 전문가 등의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사찰림연구소는 2월 철원에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6월 송광사와 선암사 사찰림 탐방을 진행했다. 7월 7일에는 춘천 청평사에서 사찰림 탐방이 진행된다.

신성민 · 노덕현 기자

성보 문화재 보물 지정 · 예고 잇달아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구 등 3점 보물 지정
조선불화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보물 지정 예고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사진 왼쪽)와 보물 지정예고된 보경사 비로자나불도(사진 오른쪽).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 발견된 사리장엄구 유물 일괄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 등 13건을 보물로 '이제 개국공신교서'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보물 제1991호로 지정된 '익산 미륵사지 서탑 출토 사리장엄구'는 지난 2009년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보수 중 심주석의 사리공과 기단부서 나온 유물로 639년(백제 무왕40) 절대연대를 기록한 금제사리봉영기와 함께 금동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각종 구슬과 공양품을 담은 청동합(靑銅合) 6점으로 구성됐다.

'금동사리외호 및 금제사리내호'는 모두 동체의 허리 부분을 돌려 여는 구조로, 동아시아 사리기 중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독창적인 구조로 주목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의 흐름이 유려하고 양감과 문양의 생동감이 뛰어나 기형(器形)의 안정성과 함께 세련된 멋이 한껏 드러나 있다.

'금제사리봉영기'는 얇은 금판으로 만들어 앞 · 뒷면에 각각 11줄 총 193자가 새겨져 있다. 내용은 좌평(佐平) 사택적덕(沙宅積德)의 딸인 백제 왕후가 재물을 시주해 사찰을 창건하고 기해년에 사리를 봉안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내용이다. 봉영기 발견으로 〈삼국유사〉를 통해 전해진 미륵사 창건설화에서 구체적으로 나아가 조성 연대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게 된 계기가 되어 사리장엄구 중에서도 가장 주목된다.

이밖에도 감지은니범망경보살계품(보물 제1988호) · 대곡사명 감로왕도(보물 제1990호) · 지장시왕도(보물 제1994호) 등 불교문화재도 보물로 지정됐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개국 일등공신 이제에게 내린 교서인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 제324호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조선시대 불교회화인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와 '평양성도 병풍' 등 조선시대 회화 2점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6월 26일 밝혔다.

보물로 지정 예고된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는 1742년(영조 18년) 조선 후기 경상도에서 활동한 세 명의 불화승(佛畵僧)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자 그린 작품이다. 높이 3m에 가까운 대형 삼베 바탕에 붉은 물감을 칠한 뒤 인물과 의복 등을 흰색 물감으로 그린 불화이다.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문수보살, 보현보살과 사천왕상 등 권속(眷屬)들이 둥글게 에워싼 원형 구도로, 비로자나불을 단독의 주존불(主尊佛)로 배치한 불화 중에는 이 작품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한다.

붉은 바탕과 백색의 섬세한 필선과 아기자기하게 배치된 화려한 장식 문양 등이 어우러져 시각적인 오묘함과 조화로움이 돋보이며, 제작 시기와 제작자가 뚜렷해 조선 후기 불화 연구의 귀중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포항 보경사 비로자나불도' 등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4대종교 이주협, "예멘 난민이 곧 부처"

6월 25일 성명 발표… '정부&지자체 신속 조치' 촉구

"제주를 찾은 예멘 난민들 모습 속에서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던 우리들의 아픈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살인적인 폭력을 피해 평범한 삶을 찾아 우리 곁에 온 나그네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4대종단 이주 · 인권협의회는 제주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6월 25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협의회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로 구성돼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독립과 분단을 거쳐 1990년 통일 국가가 됐다. 하지만 또다시 분열되었고 종교갈등까지 더해져 내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불교와 기독교 가르침을 인용해 "존재하는 모두가 부처다(불경, 원불교정전)"며 "피난처를 찾아 이곳까지 온 난민들이 곧 부처님이며, 저들이 찾아온 이곳 대한민국이 바로 예수님 피난처이다. 어찌 우리가 부처를 내칠 수 있으며 아기 예수님을 잔인한 헤롯에게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미 가입한 UN난민협약과 이미 존재하는 난민법에 따라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원 수습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 가르침!
親友書 친우서
용수보살 지음
수다지 캔뽀 한역 및 강설
지엄 편역 / 신국판 양장
504쪽 / 값 25,000원
제2의 붓다로 불리는 용수보살이 친구인 왕에게 경전의 요점과 수행의 비결을 게송으로 풀어 가르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의 교리와 수행체계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
친구(왕)에게 보내는 편지


모든 것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

윤회와 인과의 실제 이야기
지난 역사 속에서 발생하였던 윤회와 인과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진실성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들만을 골라 엮었다.
석운광 지음 / 국판 / 200쪽 / 값 10,000원


우리말 팔천송반야경
반야경전 중 가장 오래된, 대승불교의 근본 경전!
일상에서 흔히 쓰는 현대 우리말로 쉽게 풀어 옮겨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마치 설법과 대화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박이오 역 / 신국판 양장 / 368쪽 / 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